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섬 관광의 새 지평 열다

30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 유치 성공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30개 국가 및 3개 국제기구의 참가를 확정하며 국제행사로서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벌 관광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26년 5월, 국가 및 국제기구 참여 목표를 달성하여 그리스, 필리핀, 페루, 팔라우, 세네갈 등 30개 국가와 WHO, 유니세프 등 3개 국제기구를 포함한 총 33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참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람회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결과다.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섬과 해양을 주제로 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여수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에

서 가장 아름다운 만 협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섬 발전, 해양 생태 보전 등 지구적 과제를 중심으로 섬박람회의 비전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참여 공감대를 넓혀왔다.

또한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섬의 미래를 보여주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섬의 가치를 세계에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끌고자 한다.

이번에 확정된 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 각국의 섬 문화, 정책, 기술 등을 전시·공유하며 국제 교류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단순한 전시행사를 넘어, 섬과 해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원회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단계별 글로벌 홍보·마케

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와 유치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해 12월 일본 오사카, 올해 2월 미국 LA와 하와이에서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오는 6월에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해 중국 동북 3성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외관광객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올러 행사 기간 중 국제 크루즈 12항차 입항 통해 섬박람회 연계 중국·일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베트남, 중국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여수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도 추진하는 등 해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박람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유빈 기자



세계 30개국 참가 협력 장면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장천동 도시재생 '몽미락 힐링투어' 운영

순천시는 장천동에 소재한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웰니스 프로그램 '몽미락 힐링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며, 3회까지는 매주 일요일, 4회차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차차루', '몽미락식당', '온장고'를 연계해 이색 체험, 건강식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차차루'에서는 태양계와 우주를 배우는 우주 강의와 함께 행성팔찌 만들기, 로켓 만들기, 우주젤리초 만들기, 외계인 테라리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몽미락식당'에서는 12가지 이상의 반찬으로 구성된 건강식 연일밥 정식이 제공되며, '온장고'에서는 차와 다과를 즐기며 족욕과 보드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달그락맹그락 1기' 성과... 로컬 굿즈·콘텐츠 성과 공유

광양시는 지난 5월 27일 광양읍 예담창고에서 고향올래(GOHO ALL來)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달그락맹그락 1기' 수료식과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료식은 주요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미래산업국장의 축사, 수료증 수여, 우수 참여자 시상,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교육생들이 제작한 로컬 굿즈와 콘텐츠를 소개하는 성과 공유회가 마련됐다.

지난 5월 6일부터 3주간 운영된 '달그락맹그락 1기'는 로컬 굿즈 및 기념품 제작 과정으로, 경기·광주·충북·울산·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청년 9명이 전원 수료했다.

교육생들은 예담창고와 달그락 청년공작소를 오가며 광양의 문화·관광 자원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한 로컬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하트런', '돌고래런' 등 광양읍 이색 러닝코스 개발 ▲매일 인형, 매일 씨앗 굿즈, 매일 향수 ▲광양 관광지를 기록하는 '해보자 프로젝트' ▲전통 회화 기법으로 광양의 이야기를 담은 '시전지(詩箋紙)' 작품 ▲관광 안내 책자 표지 디자인 등 다양한 결과물이 공개됐다.

또한 교육생들이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프로그램 및 지역 소개 영상은 누적 조회수 15만 회를 기록했다. 광양시는 수료생들의 아이디어가 창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달그락 청년공작소를 예비 창업자들의 활동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세계장미축제, 밤이 되면 장미가 더 빛난다

곡성군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밤이 되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섬진강기차마을은 해가 지면 형형색색 조명과 장미꽃이 빛어내는 이색적인 분위기로 낮과는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화려하게 피어난 장미와 은은한 야간 조명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감성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장미공원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과 야간 경관 연출은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연인과 청년층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미향 가득한 산책길에 음악 공연까지 더해지면서 축제장은 늦은 시간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

관광객들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이 되니 한층 더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곡성군은 축제 기간 관광객들이 보다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곡성세계장미축제는 낮에는 화사한 장미의 아름다움을, 밤에는 감성과 낭만이 살아있는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라며 "올해 축제에서 낮과 밤 모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은 형형색색 조명과 장미가 어우러지며 낮과는 또 다른 야간의 낭만적인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포토존과 야간 공연이 더해지며 관광객들은 음악과 장미향 속에서 늦은 시간까지 축제의 매력을 즐기고 있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마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집수리 재능기부로 이웃사랑 실천

구례군 마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29일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집수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복지기동대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찾아 노후된 벽지를 새롭게 도배하고 오래된 전선을 교체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또한 화장실 바닥의 깨진 타일을 보수하고, 세면대가 없어 불편을 겪던 점을 고려해 세면대를 직접 설치하는 등 생활 속 불편 해소에도 도움을 줬다.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집이 오래돼 고칠 곳이 많아 걱정이 컸는데 새 집에 이사 온 것처럼 깨끗해졌다"며 "구슬땀 흘리며 도와주신 마산면 복지기동대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문필자 마산면 복지기동대장은 "생업으로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대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작은 손길이지만 우리 이웃의 일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기동대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벽지 도배와 전선 교체 등 집수리 활동을 진행하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화장실 타일 보수와 세면대 설치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추진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지원 가구는 "새집처럼 깨끗해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심선섭 기자

NA 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몰]